



현재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박근혜 정부 정책 반대하는 예술인 지원 배제 관련 현재, “표현 자유 중대한 제약, 자의적인 차별행위”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4일부터 임기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거나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명단을 관리했다. 이 명단을 이용해 정부는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단체를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정부의 세월호 구조 실패를 지적하는 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자 배급사 등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다.

야권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는 작가의 시집을 공공도서관 보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 조사로 드러났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도 이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운산·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산동철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도 연루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사실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야권 후보의 지지나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산전에 동참하면서 표현된 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긴 하지만, 정보의 성격이나 주체의 의도에 반해 지원 배제의 목적으로 이용됐다”면서 “어떤 법률의 근거 없이 문화·예술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지원 배제 지시는 문화·예술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유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익산 미륵사지 ‘2020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

자체 매력 유지·모범적 K-방역 호평 문체부, 정현을 시장에 직접 ‘장관상’

정부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선정한 익산 미륵사지 현장을 찾아 정현을 익산시장에게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여하며 축하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차별화된 관광 활성화 노력으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익산 미륵사지를 찾아 본상을 직접 전수했다.

전수식에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 국장이 정현을 시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전달했다.

전수식 후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관계자 등이 자체 매력을 유지하면서 모범적 K-방역 사례로 발전한 관광지로 인정받은 익산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시상식을 개최해 한 해 동안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

한 관광지원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상식을 취소하고 전수식으로 대체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시민 모두가 우리 자원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서 매우 경축할 뜻깊은 상이다”며 “한국관광의 별 선정에 초석 삼아 익산이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2022년 500만 관광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 창의뱅크’ 3팀 선정

전주문화재단, 최종 발표회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최근 팔복예술공장에서 문화콘텐츠 창의뱅크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동네 이야기’로 문화콘텐츠 만들기 시즌2 주제로 공모전을 시작, 공모결과 16팀 중 5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300만원의 실현 지원금을 지원했다.

실현을 마친 5팀 아이디어 중 3팀은 전문심사위원과 온라인 시민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대동상(상금 100만원), 울곧음상(60만원), 풍류상(상금 40만원)을 각각 시상했다.

대동상을 수상한 점은술(마을공유 예술의자 제작 및 마을홍보영상)는 “팔복동 어르신들에게 문화공유 센터를 만들고, 문화적 소외를 받은 팔복동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드리고자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곧음상을 수상한 임유빈(잃어버린 어린시절, 우리동네)는 “전주의 오래된 동네를 탐방해 골목길의 다양한 모습과 삶의 흔적들을 기록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풍류상을 수상한 박찬희(다빛나 아카데미)



‘문화콘텐츠 창의뱅크’ 최종 발표회에서 대동상을 수상한 점은술.

미)는 “전주에 아마추어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을 모집해 음악공연과 공예 전시, 북콘서트 등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문화행사를 청년예술가들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참여자에게 감사하다”며, “현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 문화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붓끝에서 피어난 캘리그래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류지정 개인전 내달 24일까지 1층 시민열린갤러리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내년 1월 24일까지 1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 류지정 캘리그래피 개인전 ‘다시 일어서리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화 류지정 작가는 군산에 위치한 류지정 캘리그래피 연구소를 통해 작품활동은 물론 붓끝에서 시연, 퍼포먼스와 출강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수묵캘리그래피협회 전북지회장으로 전북지역에서 수묵캘리그래피의 예술성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시 일어서리라 전시에서는 ‘세계를 향해 도약하다’, ‘대한이 살았다’ 등 대한민국과 독립, 한글과 군산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포함 33점의 캘리그래피 작품이 전시된다.

류지정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림과 글씨가 하나되어 이야기 중심의 조형미를 추구하는 수묵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역 사회에 수묵캘리그래피가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는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홍보하



류지정 작가의 작품 ‘세계를 향해 도약하다’

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군산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전시 참여자에게는 리플렛, 포스터 등 전시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